



# "학교생활이 신나고 재미있어요"...

**고** 려시대 삼감청자로 전남 강진과 쌍벽을 이뤘던 부안군 보안면 고려청자 발상지에 위치한 영전초등학교(교장 김은희)가 내실 있는 방과후 학교, 저학년을 꼼꼼히 보살펴주는 돌봄 교실·교사들의 열정과 학부모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영전초등학교는 지난 1968년 4월 1일 영전국민학교로 개교, 무수히 많은 지역 인재를 배출해오다 지난 1996년 지금의 영전초등학교로 개명된 후, 지난 1999년 인근 유전초등학교와 2010년 보안초등학교를 통합, 현재 보안면의 유일한 초등학교로 올해 제50회 졸업식까지 총 20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집무를 보고 있는 김은희 교장.

학력신장 주력·학폭 예방·유치원 종일반 운영  
전북 농악 전승학교 지정 문화유산 보존 앞장  
방과후 프로그램·학부모 대상 '하브루타' 교육 진행



신나는 방과후 프로그램.

### ▲새롭게 변해가는 영전초

지난 2016년 9월 1일자로 김은희 교장이 부임한 후 영전초등학교는 '지혜로운 인재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학생',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지식정보사회 대응능력배양, 자율과 책임의 교육행정 구현과 학력 신장을 위한 좋은 수업 만들기, 미래를 여는 탐구하기, 창의력 향상을 위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과 부안의 열 계승 발전 교육을 펼쳐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김은희 교장은 부안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학력신장'에 주력,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학교폭력 예방, 유치원 종일반 운영, 전북농악 전승학교로 지정 우리의 전통농악을 학생들에게 전승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자율적인 수업연구 풍토의 조성 과 수업장학력의 제고, 교실 수업 개선의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와 서예, 컴퓨터, 영어 등의 지도 기술 연마와 성취감 향상에 바탕이된 풍토를 조성, 미래를 여는 탐구교실 운영, 관심과 탐구 의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임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교육과정에 접목시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 ▲'방과후 프로그램이 즐거워요'

"야~와~~~", "악~하~하하~~~" 함성소리와 비명소리(?!), 웃음소리가 섞여서 강당에서 들려온다. 월요일 오후는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활기 있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학습으로 힘든 심신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는 전래놀이 프로그램의 현장이다.

1학년 허지후 학생은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전래놀이가 가장 신난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다 좋아요"라며 "그 중에서도 진 놀이는 편을 나누고 친구끼리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한다.

이승희 학부모는 산가지 놀이를 본 후 "집에서도 가족끼리 함께 하면 좋을 듯해요"라며 "서로 서로 웃어가며 우정도 많이 쌓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말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되어... '하브루타' 교육 실시

지난해 11월에 3회에 걸쳐 하브루타 교수법에 대해 부안 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로 '하브루타' 교육이란 짝을 지어 대화하며 질문을 유대인 교육 전문가인 김진자 소장와 함께 교원의 하브루타 교수법을 통한 수업 역량 강화 및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및 신뢰를 구축하려고 실제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 되어 하브루타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해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다문화 가정 위한 교육프로그램

여기에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안군, 관내 초등학교 중에 다문화 자녀·전교생 비율이 가장 높은 영전초에서 다문화 업무를 2년째 맡은 담당교사 입장에서는 매년 의무로 실시해야하는 다문화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영전가족 나눔의 날' 때 참여했던 모 학부모께서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생일파티에 시인이 어머니가 필리핀 요리를 만들어 주셔서 학생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흐뭇해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마치며

요즘 우리 사회의 인명경시 풍조와 젊은이들의 탈선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김은희 교장은 그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올바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마음 든든하다며 경로 효친 정신과 기본 질서 지키기, 준법의식, 환경보존, 나눔 먼저 생각하는 양보심,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성 회복을 발휘하겠다고 밝은 웃음 속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 부안교육의 미래를 밝기만 하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진행하는 하브루타 교육.



다문화 가정·학생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육.